

연중 제13주일

제1독서 : 지혜 1, 13-15; 2, 23-24  
제2독서 : 2고린 8, 7. 9. 13-15  
복 음 : 마르 5, 21-43

# 순정이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마르 5, 34).

## 강론

### “주님께 대한 믿음의 축복”

한봉섭 신부 / 둔율동 천주교회

오늘 복음에 소개되는 두 이야기는 예수께서 행한 놀라운 기적 사건이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재치있는 수법으로 이 두 기적 설화를 기술하고 있다. 열 두 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치유는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두 이야기는 접촉만으로 병이 나았다고 한다. 이는 놀라운 기적이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께서 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었고, 여인의 경우는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는 일종의 부활 설화이다.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예수께서는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 그의 딸이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하시며 한마디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셨다.

이 사건은 예수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은 생명 자체 이시며 부활을 드러낸 분이시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다. 회당장은 회중을 인도하는 평신도 지도자이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엄이나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열 두 해를 하혈병으로 앓는 이 여인은 가산도 탕진하게 되었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되었다. 의사들에게 실패한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내놓고 예수께 나아갈 수는 없었으므로 가만히 예수의 옷을 만지기로 결심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곧 나음을 얻었다. 그 여인은 여러 가지를 해보다 못해 최후로 예수께 왔다.

이 여인의 효과없는 장구한 노력은 육체적, 혹 정신적으로 병든 우리 자신과 세상과 같다. 참생명으로 치유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시는 생명 자체이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은 오늘 지금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신앙인은 참생명의 구원을 누릴 것이다.

## 소리

### “침묵하는 사람들”

광역의회 선거에서 2·30대 젊은층의 대다수가 투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바람에 야권의 대변동이 뒤따르게 되었다. 변혁을 원치 않는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 집권당을 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혁지향의 사람들은 심한 패배감을 맛보게 된 것이다.

‘온건한’ 사람들과 ‘조용한’ 사람들은 사회 속에 살면서도 그 사회의 주도적 구성원이 될 생각은 없다. 자기를 제외한 다수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평화’와 ‘안심’을 지킨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이란 이도저도 아니고 사회의 흐름에 눈치만 보내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여러 문제점들이 얽히게 된다.

젊은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 어느 정당도 스스로 택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냉소주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일상적 삶의 윤택과 함께 나타난 무관심과 이기주의와 냉소주의는 자신과 가정 이외의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고뇌하려 하지 않는 역사 앞에 죄를(이것을 역사학에서는 ‘반동’이라고 한다)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채는 이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할 일 세 가지가 예언적 사제적 봉사직인데, 이 셋에 진실로 성실하게 되면, 말하자면 인류 역사 발전에 반동적 인간은 되지 않는다.

종말을 향해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현실 역사와 유리된 단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혼히는 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진정한 복음화가 신자층에서도 안되고 있음을 이와 관련지어 부끄러워할 일이다. **☞**

### 순정이 산책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농민과 소비자를 살리는 직거래 운동”

지금 농업과 농민은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농민의 삶의 터전인 땅이 죽어가고 먹거리가 오염되어 있고 외국 농축산물에 밀리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인간과 한몸인 자연과 생활 환경은 계속 파괴당하고 있어 인간과 모든 생명은 죽음에 직면해 있으며 인간간의 관계 또한 분열과 불신, 살벌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농민과 소비자의 관계는 대립관계로서 팔고 사는 경쟁관계로 농민은 소비자의 생명이야 어찌되든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받아 이익을 올리려고 독한 농약을 마구 뿌려대고, 소비자는 값싸고 보기 좋은 것만 찾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도 위배되는 일이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반복육적인 죽음의 질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농민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뿌리인 농촌이 죽으면 도시인 꽃이 잘 필리가 없다. 땅이 독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죽어 있고 농민이 병들어 있는데 소비자가 먹는 먹거리야 온전하겠는가?

농촌을 살리고 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도시를 살리고 우리의 건강과 자식들의 내일을 살리는 길이다.

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비싸게 팔고 싸게 사려는 생존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 사이의 사랑과 협동의 관계로서 생산 농민은 도시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도시 소비자는 생산 농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함께 사는 공동체 운동이다

#### ※ 직거래 운동의 좋은 점

첫째, 먹거리의 유통 경로를 2단계(농민→소비자)로 줄여 중간 이윤을 없앨 수 있다.

둘째, 생산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남으로써 건강한 농산물을 믿고 공급받을 수 있다.

셋째, 생산 농민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듯이 농민과 소비자 사이의 건강한 먹거리의 나눴는 서로간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이 연대하여 반생명의 질서에 대항하여 땅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올해부터 농민회원이 공소에서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도시 본당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신청을 본당별로 받고 있다. 올해부터 생산될 농산물은



저농약 마늘, 고추, 여름철 무우, 배추와 더덕, 호박, 김장철을 이용한 무우, 배추, 메주를 만들어 직거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합성세제를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민회에서는 물에서 쉽게 분해되는 자연세제, 세탁용 물비누, 목욕용 물비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오염되어가는 지구, 오염된 밥상을 살리는 데는 농민이나 소비자 한쪽만의 참여로서는 살릴 수 없으며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끈끈한 결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는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다. 우리 후손에게 빌어온 것이다. 우리 모두 지구를 살리고 밥상을 살리는 생명 운동이야말로 하느님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는 일이다.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제공〉  
연락처 : 85-4205

신선한 생매주와 함께 생활의 맛과 여유를 찾으십시오.

## 카이저호프

\*아라바이트생 모집 (신자 환영)

☎ 85-8801  
(한성어관 사거리)

## 우리반두

모범업소 (조리사의 집)

박길섭 축 (조각리아)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생명원)

☎ 85-8848

## 전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제주도에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최소한 15일 전에 연락바람.

연락처 : (064) 55-5151  
(사도회 사무실)

## 주부사원모집

☎ 주 88-8027, 8028  
야 71-5827

중앙동사무소 옆

김금주 (벨리도)

(주) 계몽사 남전주지사 창립

# 잡 관 /

## “추억 만들기”

도시의 삭막한 아이들, 이를테면 병아리를 사서 실컷 놀다가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아이, 전쟁놀이나 폭력이 난무하는 전자 오락실에 일과처럼 드나드는 아이, 부모의 무관심으로 자신을 철저히 단아버리는 아이, 부모의 과잉 보호로 무엇이든 제 뜻대로 안되면 억지를 부리는 아이, 말끝마다 욕이 섞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 나는 웬지 두려움 같은 걸 느낀다. 어찌 이리 되었을까? 도대체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슬프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며, 생명이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추억 만들기’를 제안하고 싶다. 이를테면 따스한 봄날 동산에 올라 이름 모를 꽃들을 만나고 방아깨비 잡으며 나물을 캐던 일, 송사리 잡고 물장구 치며 흙장난 하던 일, 하얀 구름타고 흰색의 하늘을 그리며 꿈을 그리던 일, 눈사람 만들고 팽이치며 놀던 일, 온 가족이 오손도손 이야기 꽃을 피우던 일...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은 내 고향처럼 느껴지고 삭막한 마음을 잡아주며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입시 출세 위주의 교육과 도시의 유혹 등 주변환경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 정서가 메마르고 인간미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기회를 만들어서 하늘님과 자연,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 교 구 소 식

※ 농산물 직거래 상담 연락처: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교구청 별관4층 전화85-4205)

1. 대학생 연합회 농촌 봉사 활동: 7월3일-10일 고산지역.
2. 교구 중·고생 여름 캠프: 7월29일-31일 송광 야영장, 신청·문의-7월6일까지 교육국(85-0041), 선착순 300명에 해당되는 본당, 대상-중·고생.
3. 여름 꾸르실료: 남성39차-8월8일~11일, 여성35차-8월22일~25일, 신청-7월8일까지.
4. 가톨릭 문우회 모임: 7월6일(토)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5. 파티마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7월4일(목) 10시-16시 덕진 성당, 미사도구, 목주, 도시락.
6. 성모의 기사회: 7월6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7. 성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이사회: 7월6일(토) 오후2시 주현동 성당.

※ 축! 영명: 3일(성토마스) 서용복, 김정원, 이재후, 이종원, 김태환, 김영태 신부님.  
5일(성안드레아 김대건) 김진소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성바오로딸수녀회: 7월7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 2층(0652)252-3398.  
실례시우수녀회: 7월7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0681)33-2578.  
사랑의 씨앗수녀회: 7월7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3층 소성당(0652)212-3233.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7월7일 오후2시 숲정이 성당 수녀원(0652)252-9567.  
예수고난회: 7월6일 오후5시-7일 광주 명상의 집(062)571-5004 회비3,000원.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창조 질서 보전-(농촌8) 자연농 공동체에 관심을!

자연농법에 의한 무공해 생산물 직거래, 공해추방운동 등 소비자 주부들과 자연농법실천 농민들이 함께 모여 만든 자연농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직접 참여나 관심을 가져 생명 공동체 운동에 주부들의 지혜를 모아봅시다.

## 요심이 (934) 김병오



### “나자렛 예수 자매회”성소자 모임

마산교구에서는 교구 설립25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수녀회를 창설하고, 놓이촌 선교 및 공소사목과 가나안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에 나서고자 합니다. \*활동: 놓이촌 선교 및 공소사목, 사회복지시설 운영, \*입회자격: 만30세 미만의 교교 학생 이상인자로서 영세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신앙이篤실하고 진정함 미혼여성. \*문의처: (635-350) 가나안성당 성산면 율봉 2구 206번지

유봉호(바르톨로메오) 신부  
☎ (0559) 32-6295

## 사무장 채용

1. 자격: 영세후 3년 이상의 고졸자
2. 제출서류: 영세증명서 1통  
이력서 1통(자필)  
주민등록등본 1통
3. 문의처: 송학동 성당  
☎ (0653) 841-9713

천주교 전주교구 송학동교회

## 축 / 개업

## 장계성모의원

이충렬(루가) 부부 의사  
장용선(제마)

☎ (0656) 352-0174

후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 놀부보쌈

오재천(안드레아)  
정봉교(마카엘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 경남항공

• 해외여행 • 여권·비자·유학  
• 신혼여행 • 국외항공권 발매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77  
TEL. (0652) 87-9797  
FAX. (0652) 86-2754  
이종길(요한)

##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수녀화  
아동화·특수화 \*총판매장(공정직영)  
김문식(베드로)  
☎ 82-3118  
풍남문,촌간,송악로 시거리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2-8653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목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1. 오늘은 교황의 날 2차헌금 있습니다. 2. 미사시간 변경(7월7일부터): 학생미사 전8시30분(학생 예비자교리는 토요일 후6시) 공식미사 전10시(예비자 교리는 미사후에). 3. 고백성사: 새벽미사와 저녁미사 전·후에 있고 학생미사와 공식미사후에는 없음. 4. 자모회: 2일 전10시30분. 5. 성심회 월례회: 3일 어머니미사후. 6. 반희집 모임: 4일 전10시30분. 7. 성시간: 4일 후7시30분. 8. 월 사목회: 5일 후8시. 9. 병자봉성체: 5일(병자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10. 장례미사 30분전에 애중이 있음. 11. 학생 성가대: 매주 토요일 후6시 연습. 12. 급주청소: 중노2가 12·13반. 차주청소: 중노2가 14·15반.

☐ 지난주 봉헌금: 826,190원 ☐ 교무금: 814,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 교황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 회장단회: 오늘 저녁미사후.  
2. 구역분과회: 2일 오전10시.  
3. 자모회: 4일 오전10시.  
4. 성체강복: 4일 저녁미사후.  
5. 울드레아: 6일 저녁미사후.  
6. 사목회: 7일 저녁미사후.  
7. 대건회: 7일 공식미사후.  
8. 첫 영성체: 7일 공식미사중(첫 고백 6일 오후).  
성당청소: 6일 평화의 모후Pr. 능하신 정녀Pr.  
급주전례: 해설-오경화 독서·봉헌-장동주 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유남 독서·봉헌-박종호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15,730원 ☐ 교무금: 809,0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1. 교황주일: 미사중 2차헌금.  
2. 성모회: 공식미사후.  
3. 사목회: 6일(토) 저녁미사후.  
4.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후.  
5. 성서읽기: 요한1장~6장. 6. 청소년: 천주의 모친Pr.  
7. 반미사: 4일(목) 1구역5반, 5일(금) 1구역2반.  
8.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9. 봉성체: 2일(화).  
10. 급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 김봉길 ② 이준봉  
봉헌-이기봉, 이준희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 장덕용 ② 주영배  
봉헌-양계철·김대권 씨 부부  
11. 감사: 영명축일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 지난주 봉헌금: 286,800원 ☐ 교무금: 126,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오늘은 연중제13주일(교황주일) 2차헌금 있음. \* 오늘 공식미사후에 신부님 영명축하시 있습니다. 전신자 참석하시기 바라며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1. 회의: ① 사목회-7월3일(수) 저녁미사후.  
② 반장회-다음주일 공식미사후.  
2. 알릴: ① 예비자교리-예수성탄반교리를 7월부터 시작하오니 예비자를 많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② 반모임 일정신청하지 않은 반장님께서는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594,450원 ☐ 교무금: 487,6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1. 교황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2. 사목회·요셉회·사라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자모회: 6일(토) 오전9시.  
4. 첫 영성체교리: 3일(수) 오후5시(매주 수·금).  
5. 유아영세 신장바람(극민학교 2학년가지).  
6. 여름성경학교위한 차·티셔츠판매.  
7. 청소년사구역: 3단지 서편.  
☐ 지난주 봉헌금: 444,500원 ☐ 교무금: 848,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명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1. 오늘은 교황주일: 2차헌금 있음.  
2. 농산물 직거래 특별강연: 오늘 미사중에.  
3. 울드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4. 오늘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5. 성가창회: 7월1일 오전11시.  
6. 성체강복 및 조배: 7월4일(목) 오전10시.  
7. 병자 영성체: 5일(금).  
8. 구역봉사자 성지순례: 7월7일 8시30분 미리내성지.  
9. 재속물라라형제회: 다음주 오후1시30분.  
10. 성전보수헌금: 성모회(100만원), 정창희(700만원).  
\* 급주보수비헌금액 1,680,000원 \* 현재모금총액 234,121,691  
\* 급주보수비헌입액 없음. \* 현재신입총액 253,119,618원  
☐ 지난주 봉헌금: 1,566,21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택

**\* 오늘은 교황주일: 2차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 축! 본당 신부님 영명을 축하 드립니다. 3일 축하rien 없음.**  
1. 성시간과 성체강복: 4일후7시30분 전신자 참여바랍니다.  
2. 사목회 상임 위원회: 6일후8시. 여름성경학교 운영방법.  
3. 구역 반희집 연수회: 2일전10시30분, 교적없는 교우보고.  
4. 유아세례: 6일후2시30분, 사무실에 세례문서 미리 접수.  
5. 회의: 성심 부녀회-3일 어머니미사후, 각 부서 조직.  
6. 공동전화설치: 공무 외에는 공동전화를 사용해 주세요.  
7. 탈삼미사: 5일 전11시, 김집남씨 모친(7-1반). 4일 전11시 평은 이호이씨 모친(버스 10시출발).  
☐ 지난주 봉헌금: 708,830원 ☐ 교무금: 623,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기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2. 구역반장 월례회: 3일(수) 저녁미사후.  
3. 오늘은 교황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4. 본당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교무금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결혼하신자의 모후Pr.  
급주 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김정자·양노섭  
차주 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박정애·김용무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수현  
사목회장 황수석

**\* 오늘은 교황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예비자를 적극 인도 합시다(성탄반).  
① 일: 09:30 ② 목: 전10:30 ③ 금: 후8시.  
2. 모임안내: ① 안나회-다음주 11시미사후 ② 구역봉사자 모임-수요일 10시 ③ 카리따스-7.5(금) 오후3시. 3. 신자 기점 방문: ① 세경A서편: 화-수 ② 효자2단지A: 화-수 시간: 오후2시.  
4. 주일을 거룩히 지냅니다. 평일미사에 참여합니다.  
5. 초·중·고학생들을 주일학교나 미사에 참여하도록 힘씁시다.  
6. 오늘은 교무금 납부주일.  
☐ 2차헌금: 375,720원  
☐ 지난주 봉헌금: 1,064,290원 ☐ 교무금: 1,988,000원

**\* 효자대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박베드로 신부님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자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교황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3. 반석회·요셉회: 공식미사후.  
4. 제대회: 단합대회: 1일(월) 오전9시 미사후.  
5. 자모회 단합대회: 4일(목) 오전9시.  
6. 여성분과회: 5일(금) 10시 미사후.  
7. 안심공소미사: 5일(금) 저녁.  
8. 환영식: 2일(화) 저녁미사후 한신 부부신자.  
차주미일: 사목회, 꾸리아.  
신속헌금 총신입액: 96,110,000원 봉헌액: 280,000원  
급주 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 김삼기 ② 양해순 기도① 정효현  
② 박명애 차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 조규명 ② 안귀례 기도  
① 김광년 ② 백명희.  
☐ 지난주 봉헌금: 616,190원 ☐ 교무금: 1,765,000원